IFES BRIEF

RELATE TIMELY INFORMATION ON NEWS RELEVANT TO NORTH KOREA

[IFES Brief_2020-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과거 사례와의 비교

o 북한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8개월 지속), 2014년 에볼라, 2015년 메르스(5개월 지속) 사태 때도 조기 국경폐쇄 등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 전염병 확산 방지에 주력

- 2003년에 북한은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을 차단했으며 1급 세관이었던 신의주세관까지 폐쇄. 남양, 온성세관 등 2급 세관들도 완전 봉쇄

- 감염국으로부터의 방문자를 격리, 방역 조치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선전활동, 또 국제행사나 외국인 관광 중단 등의 조치

o 중국과의 왕래 차단 등에 따른 북한 경제에의 파급 영향은 과거와 차이

-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다르기 때문

- 예를 들면 사스가 유행하던 2003년 당시 중국과의 교역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다가 2010년 우리의 5.24 조치 이후 남북교역이 중단되면서 비중이 급상승되어 지금은 90% 이상을 차지

- 즉 과거와 달리 지금은 북중교역 중단에 따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

o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북중교역 중단사태는 8개월간 지속

- 사스가 한창이던 2003년엔 당시 이어지던 북중 무역 성장세가 주춤한 모습이 관측(미국의 소리 방송, 1.29)

- 당시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달이나 전년도 동기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대중 수출에선 가시적인 변화가 발생

- 사스 사태가 벌어지기 1년 전인 2002년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월평균 250%씩 증가. 특히 2002년 4월의 증가율은 475%에 도달

- 그러나 2003년 사스로 국경 문을 걸어 잠근 뒤에는 6월과 8월 각각 대중 수출 증감률이 -29.6%와 -14.2%를 기록

- 7월과 9월의 경우 각각 42%와 12.8%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 역시도 전년도 200%대의 증가율과는 큰 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o 2014년 10월 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지자 북한은 또다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에 대응(2014.10-2015.3)

- 모든 관광객의 입국을 막고 일부 외교관과 국제구호단체 요원 등 공식 방문객들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

o 2015년 호흡기증후군 메르스가 중동에서 발병하자 이 지역의 공관 근로자와 파견 노동자의 귀국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하달

- 2015년 6월에는 한국 정부로부터 검역용 열 감지 카메라를 지원받아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남측 인원에 대한 발열 검사를 했으며, 이 조치를 2016년 1월까지 유지

- 또 남측 인원이 북측 출입사무소를 통과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 상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북측 인원과 접촉도 제한

-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했던 2014년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이전에 볼 수 없던 수출입 급감 현상 가시화

- 2014년 11월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2억7천827만 달러와 2억805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4%와 23.5% 하락

- 다음 달인 12월에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6.6% 줄어들고, 수출 역시 15.5% 감소했고, 이 같은 추세는 1월까지 지속

- 2015년 1월의 경우, 수출액이 2억81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5.1%, 1억8천484만 달러를 기록한 수입액은 16.9% 하락

2. 부문별 영향

□ 관광사업

o 올 한해 북한은 관광 부흥을 통한 경제건설에 총력을 쏟겠다는 입장, 그러나 전염병 확산은 이 같은 관광대국화 구상에 타격

- 북한은 최근 개장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비롯해 마식령스키장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

- 북한의 최근 행보는 국가적 차원의 내수 관광 붐을 일으키려는 홍보전략. 물론 해외 관광객들을 향한 홍보 의도도 내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양덕온천관광지구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군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대 역점 사업

- 북한은 양덕 외에도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에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완공 예정

o 2019년 외국인관광객 인원수는 3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1] 2020년 올해에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화조달계획에 차질 초래

- 지난해 3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을 경우, 관광수입이 상품수출총액과 비슷해지거나 혹은 초과 예상

- 2019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 강화를 강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의 후유증은 중국인들의 해외관광열기를 향후 상당기간 크게 식히면서 북한 관광유인도 크게 감소시킬 전망

o 북한에 입국하는 중국인이 급감하고, 도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관광업은 물론 이와 연관된 숙박, 요식, 교통 등 서비스업도 위축 불가피

- 현재 북한에는 노동당과 청년동맹, 체육지도위원회 산하에 관광회사가 모두 3개 있는 데 신종 코로나 비루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결과 중국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하게 되어 이 관광회사들도 타격(자유아시아방송, 2.4)

- 노동자 해외파견 등도 당분간 위축 불가피

□ **교역**

o 공식무역과 밀무역 동시 감소

-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식 무역은 전염병으로 인해 국경이 폐쇄될 때마다 줄어드는 양상을 시현

- 또한 공식 무역이 막힐 경우 무역의 상당 부분이 개인과 기관의 밀무역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는데, 강력한 방역지침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비공식 무역도 쉽지 않을 전망

o 2018년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에 달해 과거에 비해 북중교역의 장기간 중단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

---

1) 서철준, "중국 관광 협력 현황과 전망,"『금강산 관광에 대한 재고찰과 해법 모색』,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세미나, 2019년 11월 12일 참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은 대북제재로 대중국 수출이 이미 2018년 기준 2억 달러, 수입은 25억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88%, 33% 감소한 상태

- 북중 무역은 2019년 2월까지 하락세(전년 동기대비)를 지속하다 하노이 회담 결렬이후인 2019년 3월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로 전환

o 2019년의 경우 북한과 중국 간 수출입을 합한 총 교역규모가 전년 대비 약15% 증가(미국의 소리, 1.29)

-북중 간 총 교역규모는 약 27억8천9백만달러($2,789,018,980)로, 전년도 2018년 같은 기간 24억3천134만달러($2,431,348,000)와 비교해 14.71% 증가

- 대중 수입은 약 25억7천만달러($2,573,821,663)로 전년도 약 22억2천만달러($2,218,140,000)에 비해 약 16% 증가

- 대중 수출은 약 2억1천520만 달러($215,197,317)로 전년 대비 약 2억1천320만 달러($213,208,000)에 비해 약 1% 증가

- 특히 지난해 북한의 무역수지 적자가 약 23억6천만(2,358,624,346)달러에 달해 두 국가 간 무역 규모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8년 이래 최대치를 기록

- 전년도에 약 20억500만달러($2,004,932,000)의 적자폭으로 기록을 갱신했던 북한이 1년 만에 3억5천400만달러($353,692,346)의 적자를 더 기록하면서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

o 이처럼 2019년 이후 북중교역이 다시 상승세에 돌입했으나 이번 전염병 확산 사태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

-북한의 수입은 크게 4가지로 분류, ① 원유, 정제유, 코크스 등의 에너지 수입 ② 광산개발을 위한 화물차, 굴삭기, 타이어 및 임가공 제조를 위한 섬유직물 원부자재 등 수출을 위한 수입 ③ 쌀, 옥수수, 사료, 감미료, 비료 등 민생관련 식량류 수입 ④ 최근 기술의 발전과 시장화 확산으로 인한 공산품(전자제품) 수입[2)]

-대중무역 중단이 북한 경제에 미칠 충격은 주로 에너지, 원부자재, 민생관련 식량류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 다만 송유관으로 전달되는 원유 등의 수입이 감소될 지가 주목

o 단기적으로 밀무역 감소, 중장기적으로는 증가 가능성

2) 한국무역협회, “2001-2018 북한 무역 10대 국가와 품목추이 및 시사점,” KITA 남북경협리포트 VOL.04, 2019, 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속에서도 북중 무역은 증가세를 보여왔고, 밀무역도 지속

- 원유, 가솔린, 디젤유 등의 북한 유입과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통한 중국의 대북 수출 규모는 상당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

- 단기적으로 국경의 전면봉쇄에 따라 밀무역도 감소되겠지만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조금이라도 꺽이는 조짐이 나타나면 밀무역은 더 성행할 것으로 전망

□ **인도적 지원활동**

o 북한과의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 개발협력을 추진해온 국제기구들이 예정된 방북이나, 관련 사업추진을 중단

-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북한내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

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일부 국제기구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인도주의 지원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의 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큼.

- 앞서 언급했지만 북한 당국은 바이러스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활동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

o 국제기구들의 대북지원 활동의 장기간 중단은 그동안 혜택을 받아온 여성이나 아동 등 북한내 취약계층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가능성

□ **시장에의 영향**

o 물가와 환율의 상승

- 중국산 수입품의 물가 급등, 중국 국경 봉쇄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시장에서 중국산 물건들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상황

- 신형코로나비루스 감염에 대한 공포감이 조성되면서 주민들이 앞다퉈 약품구입에 나서면서, 진통제, 해열제등 감기 관련 약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 (자유아시아방송, 2.4)

- 북중 교역의 핵심 지역인 평안북도 신의주의 물가와 환율이 폭등, 국경 통제로 인해 공식 무역뿐만 아니라 밀무역까지 막히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데일리엔케이, 2.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신의주의 경우 1월 초 4200원대였던 밀가루는 2월 4일 6175원에 거래. 이와 함께 9350원대였던 콩기름은 1만 5570원, 5250원대였던 사탕 가루(설탕) 가격은 6400원대에 판매, 이는 한달 전과 비교해 각각 약 47%, 68%, 22%씩 상승한 것

- 평양 역시 일부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조사. 1월 초 4200원에 거래되던 밀가루는 2월 4일 기준으로 6250원 선에 거래, 9500원 선이었던 콩기름은 1만 5500원, 5050원 선이었던 사탕 가루는 6500원에 판매. 상승률은 각각 49%, 63%, 29%

o 식자재뿐만 아니라 외화 환율도 상승된 것으로 조사

-신의주에서 2월 4일 기준 원(북한)/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보다 500원 오른 8800원, 원(북한)/위안 환율은 170원 오른 1380원으로 각각 약 6%, 14% 상승

-지난해 연말 이후 북한의 외화 환율은 꾸준히 올랐지만, 국경 통제 이후 상승 폭이 대폭 증가

-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대내외적인 불안 요소들은 북한내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안전자산을 확보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외화수요증대와 환율상승을 유발

o 수입 감소, 주민들의 이동제한 등으로 당분간 시장활동의 위축이 불가피

- 도소매 상품의 유통량 감소로 전반적인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수도 있고, 이는 다른 상품들의 가격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

- 시장활동의 위축은 매출하락과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면서 경제 활력을 약화시킬 전망

- 도시 간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시장활동이 위축되면, 이와 연관된 숙박, 요식, 교통, 배달 등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

3. 결론과 전망

o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을 정면돌파전의 승리로 성대히 장식하기 위해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장기화될 경우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

-더불어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결산도 해야 하는 처지, 단기적으로 김정일 생일(2.16), 김일성 생일(4.15) 등 국가적 명절을 기념하기 위한 선물 등 의 원활한 공급,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삼지연시 3단계 공사 등 각종 대형 건설사업 마무리 등이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 의약품 등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필수적으로 수입해야 할 품목들도 존재

o 국제사회의 제재와 코로나바이러스 변수가 동시에 북한 경제를 압박하면서 지난해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분야에서의 정면돌파 전략 수행도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

- 물론 북한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나름대로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안정적인 연료, 원료, 부품자재, 건설자재 등의 수입(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

o 다만 북한은 어려움 속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면을 계기로 자력갱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공급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국산화와 과학기술에 더 매진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정면돌파'로 유엔 제재를 뚫고 나가겠다고 주민들에게 자력자강, 자력갱생할 것을 요구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강력한 대북제재가 예상보다 북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도 존재

o 시험대에 오른 김정은 정권의 위기대응능력, 즉 전염병 통제능력

-코로라바이러스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고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도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손상을 입을 수 있음.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 해 연말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하면서 제3항에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 수립을 처음으로 포함

-당장 북한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신종 코로나' 관련 정보를 국제사회와 얼마나 공유할 수 있을지가 주목

- 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